

등교 개학 이루어지다!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



코로나 19로 인하여 미루어졌던 등교 개학이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가 5월 13일로 예정되었다가 이태원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하여 5월 20일로 미루어졌고, 순차적으로 2학년 5월 27일, 1학년의 경우 6월 3일에 등교하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학교 등교 전 집에서 나이스를 통해 자가 진단을 하여야 하고 자가 진단 결과 등교 중지가 뜨는 경우는 담임선생님과 연락을 취한 후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자가 진단에 문제가 없을 경우 학교 등교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를 하고 체온이 37.5도가 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 마스크 하기, 손 자주 씻기는 물론 학급 안에서도 학생들은 거리 두기를 위해 짝이 없이 일렬로 앉아야 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반별로 지정된 화장실을 분산해서 이용해야 한다. 또한 급식실에서도 학생들을 코로나 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스티커가 붙여진 좌석에만 앉아서 식사를 하여야 한다. 친구들과 간의 대화는 최소화 하고 식사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이다. 환일고등학교의 입시율의 기반이 되는 자율학습 또한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야간까지 진행할 수 없어서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에도 지장을 주었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염원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는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좁혀서 학생들 간에 서로 배려하는 학교생활을 하길 바란다.

2학년 김민규 기자

소중한 일상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김은미 이사장님



2020년 봄,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던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전 세계가 불구덩이 속에서 달아올라 아직도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우리의 일상이 한 순간에 불속에 던져졌습니다. 학교의 수업과, 모든 활동들이 멈춰지고 학년 간 순환으로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불안감, 걱정들을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해 나아가 혼란의 시기에서도 굳세게 견디어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고1 신입생 여러분들은 환일의 뛰어난 학사 활동, 교내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시기에서도 선생님들과 함께 잘 지켜 나아가 주어서 무척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고2 여러분, 고교 생활의 황금시기를 단련과 인내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힘든 역경을 극복하여 더욱 굳세고 단단한 환일 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환일의 성을 더욱 굳세고,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짧은 여름방학 동안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가을을 맞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면-12면 주요내용 소개

1면 등교 개학 이루어지다! 이사장님 말씀
2면 학교 소식

3면 신앙생활
4-7면 학교 행사

8면 특집 기사
9면 학교 소식

10-11면 소감문
12면 수상자, 2학기 일정



학교소식

인공지능(AI) 융합 교육과정 운영

2020년 3월 교육부에서 '인공지능(AI) 융합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 34곳을 선정하였는데 서울에서는 동양고·서라벌고·오산고·태릉고와 환일고 5곳을 선정하였다. 본교는 2021년부터 1학년 모든 학급에 '정보' 과목을 편성하고, 2학년에는 '정보 과학' 과목이 모든 학급에 편성하여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년간 AI 융합 과목(응용 프로그래밍, 컴퓨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관련 교과(신설) 등)를 총 26단위 이상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준비 단계로 창의 융합형 정보교육실을 구축하여 '창의적인 공간'에서 AI 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IT 도서관에 인공지능 관련 도서들을 구비하여 관심 있는 학생들이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풍부한 자원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상설 동아리인 컴퓨터 코딩반을 운영하여 코딩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지컬 컴퓨팅 기초부터 코딩 교육을 통해 LED 제어 및 로봇 제어 등의 실습으로 코딩 능력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AI 동아리를 조직하여 인공지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부터 데이터 종류 및 전처리에 대한 이해, 딥러닝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와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교의 홈페이지(컴퓨터 활용 토론회와 작업실)를 활용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율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산출물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울 것이며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 드론 등 관련 상설 동아리도 개설하여 AI 융합된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리라 기대한다. 매년 12월에는 S/W 코딩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업 시간에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파이썬)를 기초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코딩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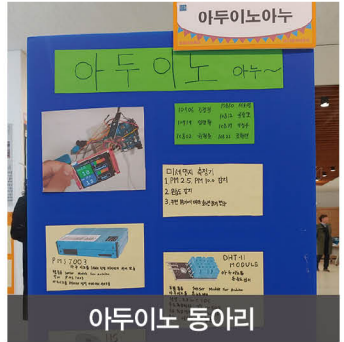
2학년 김민규 기자



AI 교육



코딩 교육



아두이노 동아리

연합형 선택교육과정 실시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이란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 전공 교사가 없어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 등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학교 간 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차후 개방형 협력 교육과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이고, 한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인근 학교와 연합하여 공동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교육과정 제도이다. 학교간 연합으로 캠퍼스를 공유하는 형태인 만큼 공유캠퍼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목표 아래 특성화된 질 높은 수업 및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에 의한 학생,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제고라는 이상적인 목표 또한 연합형 선택교육과정에 담겨 있다. 공유캠퍼스 선정 결과 총 3개의 캠퍼스를 선정하였는데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에 속한 강서고, 대일고, 영일고가 공유 캠퍼스로 선정되었고, 동작관악 교육지원청에 속한 수도여고, 당곡고, 영등포고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부교육지원청에 속한 중경고, 신광여고, 환일고가 같은 캠퍼스를 공유하게 되었다. 본교가 속한 공유 캠퍼스에서 개설된 강의는 중경고등학교의 경우 사회 탐구와 관련된 사회문화 과제 연구를 개설하였고, 신광여고등학교의 경우 미술 교육과 관련된 디자인 일반 수업을 개설하여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본교에서는 자료 구조 수업을 개설하여 컴퓨터에서 처리할 자료를 효율적으로 구조화시키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학교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한 세분화된 강의를 통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지도교사 최우식



수업 참여 학생들



이사장님 격려



자료 구조 수업

박성준 국회의원과 학부모 간담회 실시

2020년 6월 11일 본교 세미나실에서 올해 제21대 중구 성동구를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성준 국회의원과 환일중·고등학교 학부모님 간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박성준 국회의원은 전 JTBC 아나운서 팀장으로 대중들에게 익숙한 얼굴이기에 학부모님들도 박성준 의원과의 간담회가 낯설지 않았다. 박성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또한 간담회에는 중구 서울시의원인 박순규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환일 중·고등학교 관계자로는 학교법인 문화학원 김은미 이사장님과 박종관 교장님, 고등학교 이정철 교감님, 중학교 강흥구 교감님, 이채욱 행정실장님이 참석하였다.

박성준 국회의원은 평소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 중 대학 진학률이 높은 환일고등학교에 우선 방문해서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간담회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간담회에서 학부모님들은 청소년기에 있는 남학생들의 경우 체력 단련과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체육 활동 시간이 많은 상황인데 환일 중·고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운동장, 체육 시설을 쓰는 상황여서 중·고등학생간의 학생 밀집도가 높고 보다 다양한 체육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박성준 의원은 향후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현하고 간담회를 종료하였다.



박성준 의원과 김은미 이사장님



박성준 의원과 학부모님



학부모 간담회

신앙생활

신입생 환영 예배 및 기드온 성경 전달 예배 실시

2020학년도 6월 15일 환일 고등학교 대강당에서는 1학년 신입생 환영 예배 및 기드온 성경 전달 예배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신입생들이 본교에 입학 후 강당에서 드리는 첫 예배라는 것이 의미 있었다. 본교 신앙 동아리인 경배와 찬양단 학생들의 축하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1학년 후배들을 위해 등교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학년 경배와 찬양단 학생들이 등교하여 축하 연주와 찬양을 하여서 선생님들과 후배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기드온 협회 회원이자 동서울 교회 장건섭 장로님의 기도로 강당의 예배는 은혜로움이 가득했고 본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함께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축복송을 불러서 신입생들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기드온 협회 서울캠프 회장인 안태운 장로님이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는 말씀으로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자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특히 오늘 예배는 기드온 협회에서 신약전서와 시편·잠언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나누어 주셨는데 기드온 협회는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성경을 전달하고 비치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 단체이다. 기드온 협회는 1899년부터 성경을 전달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200여개 국으로 조직되어 있다. 안태운 장로님 외에 장건섭, 윤상우, 백수현, 홍순철, 고윤숙, 우효숙, 이혁준 회원님께서 직접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뜻깊었다. 마지막으로 박종관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 하였다.

3학년 김용현 기자



부활절 온라인 예배 실시

코로나 19의 여파는 학생들의 수업 및 등교 뿐 아니라 부활절 예배에 영향을 주었다. 4월 13일 본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예배 당일 학급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동영상으로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소식'에 관한 박종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소식'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소식,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소식,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승천 소식, 하나님의 재림 소식이라고 설교해 주셨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평소에 살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처럼 코로나 19도 극복하자는 말씀으로 설교의 끝을 맺으셨고 박종관 목사님의 축도로 부활절 예배가 마무리 되었다. 또한 학급에 제공된 '부활절 계란의 의미'에 관한 동영상을 통해 계란은 병아리가 알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을 생각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잘 믿기를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서 학생들이 '부활절에 왜 계란을 나눠 먹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비록 온라인 부활절 예배였지만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에 학생과 교사가 하나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2학년 류호빈 기자



심령 부흥회

2020년 7월 6일(월) 환일고등학교에서는 교직원·학생 심령부흥회가 있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다른 해와는 다르게 부흥회 일정이 짧은 일정이어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김철우 전도사님의 사회로 부흥회가 진행되었고, 경배와 찬양단의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으로 부흥회의 시작을 알렸다. 미래교육부 부장님이신 김효숙 부장님께서 부흥회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다. 3학년 9반 선교 부장인 함시온 학생의 특별찬양 '하나님의 은혜는 부흥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은혜로움이 가득하여 깊은 감동을 주었다. 설교 말씀은 동행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준우 목사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라는 말씀으로 진행해 주셨다. 설교 말씀과 관련된 성경 말씀은 '삭개오'라는 세리장과 관련된 누가 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삭개오를 사 람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도다. 인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였다.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영역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쉽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 삭개오는 신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 결함'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다. 환일고 학생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학년 김명진 기자





학교행사

신입생 입학식 실시



2020학년도 1학년 입학식이 6월 3일 드디어 등교 개학과 더불어 본교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다른 해 같으면 3월에 입학식을 치르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질 무렵인데 6월에 하는 입학식은 새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 입학식이었다.

찬송과 기도로 입학식의 시작을 알렸고 환일고등학교 연혁 소개, 설립자 및 이사장님 소개가 이어졌다. 김은미 이사장님의 환영사로 인해 입학할 하게 된 학생들은 드디어 자신이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박종관 교장님의 입학 허가 선언과 1학년 대표인 김세중 학생의 서약으로 환일고등학교 219명 신입생은 진정한 환일인이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함시온 학생이 환일잔가를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축하의 의미로 불렀고, 2학년 김명진 학생의 축주를 통해 입학식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교장, 교감, 행정실장님과 간부 교사 소개가 이어졌고 2월에 보였던 학급 담임 선생님들과 다시 한 번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교 음악 선생님인신 탁우빈 선생님이 만든 환일응원이가 제창을 통해 1학년 학생들은 코로나 19의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 학교 생활을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1학년 송무형 기자

온라인 스승의 날 기념식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고 코로나 19 감염이 쉽게 종식이 되지 않아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5월 15일 스승의 날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스승의 날 행사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끼리 운동을 하거나 학교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만 여겼는데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스승의 날 행사에서 학교에 학생들이 없고 교사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일상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각 학년을 대표하여 1학년 송민규 학생, 2학년 나승민 학생, 3학년 임낙균 학생이 스승의 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작성하여 비록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표창이 있었는데 그동안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한 공을 인정받아 본교 한재혁 부장님이 교육감상을 받았고, 이승원 부장님이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상 표창을 받았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어서 학생과 교사가 학교에서 함께 수업하고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3학년 최승정 기자



스승의 날 감사 편지



올 해 스승의 날은 예년에 비해 선생님들께 더욱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해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감사한 마음을 표했었는데, 올해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로 인해 개학도 미뤄지고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하다 보니 선생님들과 마주하며 수업을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느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업 외에도 부활절 예배, 체육대회, 수련회 등 모두 큰 사고 없이 학급 친구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고 바른 학생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 그 넓고 큰 마음 본받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날들에 늘 행복이 깃들고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학년 나승민



안녕하십니까 3학년 1반 임낙균입니다. 이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대표로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글로써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학교에 나와 저희를 챙겨주시고 한눈 팔지 않게끔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아무도 아프지 않고 지난 70일간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환일에서의 봄은 함께 보내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남은 여름, 가을, 겨울을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랑스러운 환일고등학교를 다니며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의 귀한 가르침과 사랑을 받았을 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부족한점 투성이인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던고 올라설 디딤돌이 되어주셨으며, 때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감당하기 벅찼던 탓일까요, 저희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고, 가끔은 따끔한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무궁한 헌신에 다시 감사드리며 치기 어린 행동으로 더 나은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이 자리를 빌어 용서받고 싶습니다.

“교육의 참된 목적은 각자가 평생 자기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생님들께서 전해 주신 말씀과 뜻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선한 영향력을 내뿜는 사람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걸어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3학년 임낙균





학교행사

영재 학급 온라인 입학식 실시

2020년 4월 25일 영재 학급 온라인 입학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 영재학급 선발은 기존에 실시했던 지필 평가는 생략하고 자기 소개서, 학업 계획서, 교사 추천서 등 서류를 통해서만 선발 과정이 이루어졌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영재 학급 선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조치였다.

과학 영재(고성주 외 19명), 수학 영재(전태현 외 19명), 융합 영재(이진호 외 19명)로 총 6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영재 학급 온라인 입학식은 김은미 이사장님의 환영사, 박종관 교장님의 입학 허가 선언과 영재 학급에 선발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격려사를 통해 영재 학급의 영재로 선정된 학생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환일 고등학교 영재 학급은 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학 영재반, 수학 관련 분야를 밀도 있게 연구하는 수학 영재반, 창의적인 산출물을 연구하는 융합 영재반이 본교에 개설되어 있다. 담임 교사의 소개로 이어졌는데 과학 영재 이은형 선생님, 수학 영재 배수화 선생님, 융합 영재 김희경 선생님이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연간 총 90시간을 이수하고 각 분야별 전문 수업 내용뿐 아니라 AI 연계 교육 과정, 인성, 리더십,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1학년 송민규 기자



입학 허가 선언

(과학영재) 고성주 외 19명
(수학영재) 전태현 외 19명
(융합영재) 이진호 외 19명

위의 학생들은 2020학년도 환일고등학교 영재학급 신입생으로서 모든 절차를 마쳤으므로 입학을 허가합니다.



6·25전쟁 70주년 안보교육 실시

2020년 6월 25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본교에서는 이런 의미있는 해에 뜻을 기리고자 6.25관련 영상을 시청하였고, 순국하신 분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 사태 때문인지, 어느덧 2020년의 절반이 지나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6월 25일을 안보특강을 통해 맞이했다. 코로나사태, 중간고사와 각종 수행평가로 정신 없는 와중에도 환일고등학교는 이 중요한 날을 기억했다. 안보특강은 동영상 통해 진행되었다.

광복 후, 양측의 이념 대립부터,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가 북을 지원하여 전쟁이 시작되고, 유엔군까지 합세하여 밀고 밀리며 많은 이가 죽고, 휴전을 맺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을 보고 들으며 학생들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 특수부대와 미국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은 학생들의 마음을 울렸다.

전쟁의 상처는 정말 뼈아팠다. 이념의 대립뿐만이 아니라,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 등이 반복된 비극들을 낳았다. 서울에 남겨진 시민들은 무고함에도 즉결처형을 당하고, 어린 학도병들이 고작 몇 시간동안 총 쏘는 훈련을 받고 전투에 투입된 사실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저리게 한다. 전쟁이 중단되고 나서도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지금까지 찢어진 채로 살고 있다. 우리 민족은 서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다시 붙여야 할 필요가 있다.

환일고등학교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지금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을 위해 묵념을 하였다. 죽음을 마다하고, 평화를 위해,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억하는 환일학생이 됩시다.

2학년 임현석 기자



교생 실습 실시



환일고등학교에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26일 까지 2주간 교생실습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다른 해보다 실습 시기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4주가 아닌 2주간 진행하였다. 총 10명의 교생 선생님이 본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3명,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2명, 한국체대, 성균관대, 숭실대, 강원대, 고려대 각 1명이 실습에 참여하였고, 담당 과목은 상담, 과학, 윤리, 체육, 한문, 정보, 사회, 수학으로 다른 해보다 다양한 분야의 교생 선생님께서 실습에 참여 하였다. 이번 실습에도 환일고 졸업생이 6명이나 교생 실습을 하기 위해 모교를 찾았다.

다른 때보다 실습 기간이 짧았으나 학생들이 1, 2학년 학생들이 교차 등교를 하기 때문에 1, 2학년에 각 한 반씩 담임 반으로 배정이 되어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2주 동안 수업 참관, 수업 시연, 자율학습 감독, 체육 대회 행사 참여, 급식 지도 등 짧은 실습 기간에 비해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본교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교직 생활을 하는데 있어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학교행사

온라인 개학 및 온라인 수업 실시!

온라인 개학이란 2020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국 초중고 개학이 연기를 거듭한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교사와 학생이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중학교 3학년에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었는데 환일고등학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줄이고 학업에 열중하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모두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였다.

온라인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화상 연결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과 EBS 콘텐츠나 교사가 녹화한 강의를 보는 '콘텐츠 활용형',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이 있다.

환일고등학교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중심으로 교사가 EBS 콘텐츠와 각종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수업과 실시간으로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 중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실시간 질의, 응답과 퀴즈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경우는 1회 수업을 블록 타임으로 지정하여 2시간 연속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였다.

코로나 19가 지역 사회에 산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은 5월 19일, 고등학교 2학년은 5월 26일, 고등학교 1학년은 6월 2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2학년 김민규 기자

111 원격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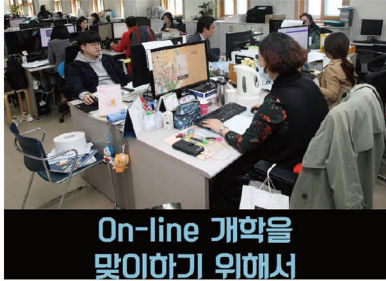
환일고등학교

시간표(교과)

< 온라인 개학에 따른 3학년 시간표 >

시간	교과	교과	교과	교과
1	국어	수학	영어	수학
2	영어	수학	국어	수학
3	수학	영어	수학	국어
4	수학	영어	수학	국어
5	수학	영어	수학	국어
6	수학	영어	수학	국어
7	수학	영어	수학	국어
8	수학	영어	수학	국어
9	수학	영어	수학	국어
10	수학	영어	수학	국어
11	수학	영어	수학	국어
12	수학	영어	수학	국어

★ 체육중점학습, 직업반 별도 시간표 운영



환일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일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새 학기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독서캠프 실시!

2020년 독서캠프가 6월 18일 18:00~23:00에 본교 독보도서관에서 '인문 도서 독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주제로 실시되었다.

독서를 통해 학생들은 집중력과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고 책 읽기에 몰입하는 경험을 통해 독서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 읽는 것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독서 캠프의 취지이다.

참가 대상은 6월 11일~6월 15일 사이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이 참가 신청서에 자신이 읽은 인문학 서적의 책 제목을 쓰고 독서 캠프에 참석하게 된 동기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중에서 합격자를 발표하여 정하였다. 도서부원 8명과 신청 합격자 12명이 독서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올해 독서캠프에서는 '독서노트, 독서가방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민화를 이용한 가방 만들기 시간이 흥미롭고 이색적으로 보였고, 인문 서적의 한 문장을 적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제출한 인문 서적의 문장을 3-4문장 활용하여 제작한 노트에 단편 시 짓기 등 글쓰기 및 독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참여 했다.

학생들이 다양한 독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독서캠프를 준비해 주신 송원진 선생님과 유소연 사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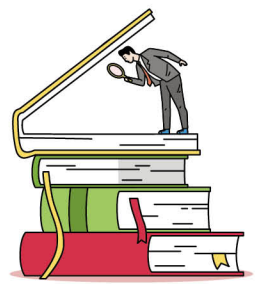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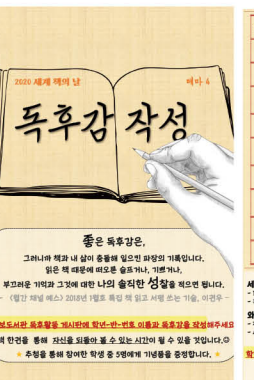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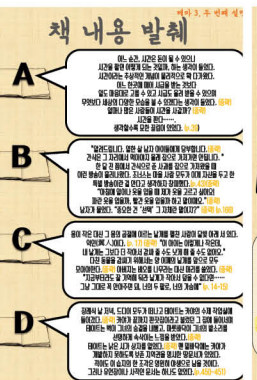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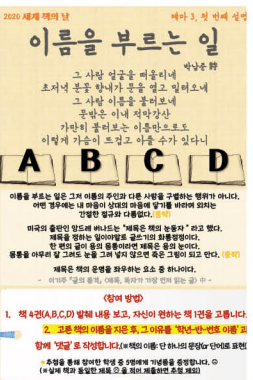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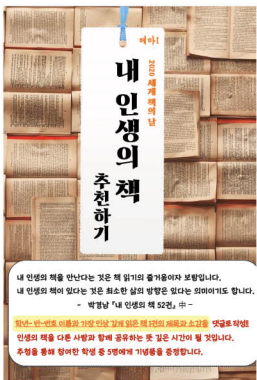
2학년 임민혁 기자



세계 책의 날 행사 진행

2020년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었다. '세계 책의 날'은 1995년 독서와 저술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저작권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날짜가 4월 23일로 결정된 것은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까발루니아 지방 축제일인 '세인트 조지의 날(St. George's Day)'과, 1616년 셰익스피어와 세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이 이날인 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세계 책의 날' 행사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본교 독보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세계 책의 날' 행사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자신이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제목과 소감을 댓글로 작성하는 활동, '세.계.책.의.날.' 기념 오행시 댓글로 작성, 책들에 대한 설명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책 1권을 골라 스스로 책 제목을 지은 후에 책 제목과 그렇게 지은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기, 독후활동 게시판에 독후감 작성하기로 총 4개의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인상 깊게 읽은 책들을 소개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독서 호기심을 자극 했고 세.계.책.의.날. 기념 오행시 짓기는 재미있는 작품이 많이 나와서 이벤트 자체를 풍성하게 해주었다.

3학년 복현준 기자



특집기사 - 환일에서의 3년을 떠올리며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입학

민동진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표했던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새내기가 된 민동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졸업하고도 이렇게 학교 교지에 글을 쓰게 될지는 몰랐었는데 어떻게 기회를 얻게 되어 환일고에서 보낸 지난 3년을 추억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대학 캠퍼스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어서인지, 요즘 들어 자주 떠오르는 제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여러분이 짧으면 1년, 길면 3년 후에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는 맘에 들지 않는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짹짹 수업과 자습도 버거운데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부족한 잠에 시달리며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창생들과 모여 옛날 얘기를 하다보면 막상 이러한 불만들은 잊혀지고, 신기하게도 환일고의 좋았던 점들이 떠오릅니다. 자유로운 냉난방 시스템, 학생들을 사랑해주는 선생님들, 재미있는 친구들 등이 당시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환일고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함께 하며 저희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다는 점입니다. 답다고 하면 샤워부스를 만들어주시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자습실을 개선해주시고, 고민이 있으면 부모님처럼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등, 학생들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환일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반고 인데도 영재반 수업과 다양한 경시대회가 마련되어 있어서, 수업만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 것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의 주제가 주제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단지 지금은 힘들고 못마땅한 것이 많겠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낯설고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 모두 남은 학창생활을 건전하게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입학

김지원



벌써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개월 정도가 되고 이렇게 글을 쓰려하니 약간 어색하고 글로 선생님들과 후배들과 소통할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합니다. 요즘도 가끔 하는 생각이지만 만약에 내가 환일고가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도 생각하곤 합니다. 그 만큼 환일고등학교는 저에게 정도 많이 든 학교이고 감사함도 많이 느끼게 하는 학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왜 해야 하는지, 열정 없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일주일에 3번 넘게 밤까지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친구들과 같이 응원하면서 자신의 공부방법들을 공유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욕심도 생기게 되면서 학업에 흥미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 과학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환일고에는 영재학급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소논문을 쓰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 한여름 밤의 축구대회, 반대항 축구대회 등 많은 체육행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과 장난치고 뛰어다니면서 지냈던 것이 제 고등학교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제가 환일고에 입학하는 첫 오르막길에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덕을 3년동안 오르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즐거운 일도 많겠지만 힘든 일도 정말 많이 일어날 텐데 꼭 마지막으로 이 언덕을 내려올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후회없이 내려오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고 항상 곁에는 좋은 친구들과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시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도 못 나가고 아쉬움도 물론 크겠지만 더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일고에서 항상 수고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후배님들도 항상 화이팅하십시오.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입학

김규찬



수능을 끝마치고, 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날씨는 벌써 한 학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아직 대학교에 등교한 기억도 없는데, 시간은 또 왜 이리 빠르지 모르겠다. 현재 미증유의 사태로 거의 모든 대학의 새내기들이 자택에서 사이버 강의를 들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번 뿐인 새내기 시절인데 벌써 절반가량이나 별다른 추억 없이 지나가 버린 것이 억울하기도 하지만,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대학 수업이지, 수능 강의가 아닌 것에 적응이 위안을 받기도 한다. 만약 입시를 실패하고 다시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러나 필자는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 과정을 거쳤었다. 재수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불안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재수 생활을 하면서 방향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에서 3년간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시간들이 사라지지 않고 '기록'으로 남아 전쟁터와도 같은 입시 판에서 믿을 수 있는 칼과 방패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지난 학교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환일고는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아낌없이 주는 곳이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학습 환경을, '음악, 체육, 미술' 분야를 꿈꾸고 있는 자들에게는 각자에 맞는 중점 학급을 제공해주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할 기회가 생기면 정보를 주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해주었다. 미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았던 필자를 예로 들어보자면, 나름 성실하게 생활했던 필자에게 학교는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교내 미술 대회를 개최해주기도 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 수업을 개설해 주기도 했으며, 특히 3학년 때는 미술중점 학급을 통해 더욱 다양한 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선생님들께서도 미술대학 입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진로를 응원해주셨던 담임선생님과 미술선생님들께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분명히하고자 하는 것은 환일고가 무언가 이뤄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뚜렷한 진로가 없어 왜 공부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마냥 놀고만 싶은 자들에게 학교 생활이 쉽지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 부당하게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오히려 꿈이 없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아닌가. 정말 원하는 진로가 생겼을 때, 성격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환일에서의 3년'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버티는 자에게 정당한 결실이 있을 것이며, 잠시 미끄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려는 자에게 건곤의 발판이 되어 줄 것이다.

대전대학교 한의예과 입학

이태호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태호입니다. 제가 환일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받았던 많은 도움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글에 모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환일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활동은 다양한 형식의 대회들입니다. 환일고에는 다른 학교에는 없는 각종 대회들이 많습니다. 여러 대회가 있지만 학생 특강 대회, 소논문 발표대회, 학생 토론 대회 등 자신의 생각이나 연구를 대중 앞에서 발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회가 많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확장시켜주었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3분 페이퍼 대회들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이런 경험은 여러 대학교의 제시문 면접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요일 아침자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칫하면 게을러질 수 있는 주말에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서 공부함으로써 부지런한 공부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힘들었지만 졸업하고 생각해보니 아침에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환일고의 좋은 체육 시설과 시스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넓은 잔디구장과 체육관, 여러 개의 깨끗한 샤워시설, 활성화된 스포츠클럽 등 환일고 하면 체육시간이 떠오릅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간에는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체력을 기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는데, 이 시간이 입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일고에 다니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적은 고3 2학기 시절입니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3학년 2학기를 악조건 속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일고에서는 수능 준비반, 면접 준비반, 적성고사 준비반 등 개인의 입시전략에 맞춘 교실을 제공하여 최상의 조건에서 입시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환일고등학교가 차별화되고 깨어있는 학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에 하는 경건회와 월, 목요일의 예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할 때 힘든 점은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친구들이 해주는 기도과 일주일에 2번씩 있는 예배시간에 목사님의 응원과 경배와 찬양단의 찬송가를 들으면서 지친 마음을 기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사에 열정적인 학우들과 선생님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환일고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구나',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환일고등학교는 일반고이지만 여러 지역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이며 저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학우들이 모인 환경에서 공부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잠재력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환일고에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하라고 한다면 10년이면 10년 언제나 환일고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학교소식

전교 학생회장 선거 실시!

2020학년도 학생회장 선거가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의 경우 6월 23일,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6월 24일에 거쳐 이루어졌다.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 인원이 3분의 2만 등교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회장 선거 역시 각 학년 등교일에 맞추어 진행하였다.

학생회장에 입후보한 학생은 기호 1번 2학년 8반 류호빈, 기호 2번 2학년 4반 박준형, 기호 3번 2학년 8반 이희현이었다. 선거일이 학년 별로 다르고 등교일도 학년 별로 다른 상황에서 선거 운동을 한다는 것이 후보자들에게는 쉽지 않았고, 특히 1학년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이 진행되다가 학교에 등교한지 얼마 되지 않아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장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동표를 자신의 표로 만드는 것이 선거에서 중요한 상황이었다.

학생회장 후보들의 선거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띈 공약은 남자 고등학교에 걸맞게 체육 시설 이용이나 체육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것이었다.

선거에서 중요한 정견발표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이번 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았다.

선거 결과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한 2학년 8반 이희현 학생이 전교 학생회장에 당선되었고, 그 다음 득표수를 차지한 2학년 4반 박준형 학생이 전교 학생부회장에 당선되었다. 두 당선자 모두 학생들에게 세웠던 선거 공약을 지키고, 환일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리라 믿는다.

2학년 성락원 기자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당선 소감문

전교회장 당선 소감문

학생회장 2학년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교회장 선거에서 전교회장으로 당선된 이희현입니다, 우선 저를 믿고 뽑아 주신 선배님들, 학우들, 후배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던져주신 한 표 가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평소에도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옛날부터 저를 아시던 분들이라면 제가 학생회장에 당선된 것을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학업 스트레스 등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네 아는 형, 친구, 동생같은 학생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환일고 학생분들은 저를 거리낌 없이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는 한 번 결심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성취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학교에서 불편한 점들 저에게 편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회 경험이 처음이라서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며 부회장준형이와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학교를 잘 이끌고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뿐만이 아닌 행동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반바지와 시계 설치는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항상 모범을 보이고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학교와 학생 사이의 중재자 및 최고의 학생회장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끄러웠던 선거 유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피해를 받으신 만큼 제가 행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서 응원해줬던 친구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와줬던 친구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교부회장 당선 소감문

학생부회장 2학년 박준형



환일 고등학교 학우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전교회장선거에 나와 부회장으로 당선된 박준형입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전교부회장이 되기까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주신 선생님과 저를 믿어준 친구들과 후배,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이른 아침에 꼬박꼬박 나와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신 한 표 한 표에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망 시키지 않도록, 절대 이번 전교부회장이 했던 일이 없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임원은 자주 해봤었지만 고등학교 전교임원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해보고 싶었는데 당선이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학창시절에 어떤 일에 큰 책임을 갖고 임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교회장으로 당선되고 싶었지만 전교 부회장도 전교 회장만큼이나 중요한 직책이고 전교회장으로 당선된 희현이는 저보다 목소리도 크고 부끄러움도 없어서 제가 회장을 하는 것보다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 희현이를 도우며 안 보일 때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전교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약들은 여러분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공약들을 꼭 지키면서 전교회장 희현이의 공약도 지켜지도록 서로서도 열심히 도와서 우리 학교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후배, 선배님들의 작은 의견도 귀담아 듣고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모범이 되는 전교부회장으로서 우리 환일고등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 드린 공약 말고 딱 한 가지 공약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뒤 후배들이 새로운 전교임원을 뽑을 때, 작년 전교임원이었던 이희현과 박준형 선배님은 공약했던 것들을 정말 잘 지키고 우리 학교에 꼭 필요했던 전교임원이었다. 작년 선거에서 이희현과 박준형 선배님을 뽑은 것은 학교를 위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를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교부회장 박준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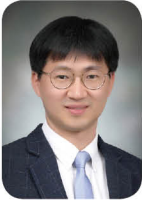


소감문

신입 교사 소감문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회과 김지훈 교사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환일고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게 된 사회과사 김지훈입니다.

선생님은 사회교육과를 졸업했어요. 처음 사회교육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배우는 교과목으로 설명하자면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 과목을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전공이에요. 사회교육을 전공으로 선택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게 사는 친구들에게 재미있게 사회를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한 때는 내신과 수능준비로 학생들이 공부에서 흥미와 재미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다짐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빼고 교과서와 수능 중심의 수업만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흥미로운 기사들이나 보고서들을 볼 때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사회교사로서의 숙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보았던 흥미로운 기사 하나만 소개 할게요. 사회과학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한 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KBS와 시사인에서 공동 기획으로 이뤄진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의 세계' 시리즈 기사인데 학문적 연구를 통해 어떻게 우리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유별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친밀한 관계인 부부사이에도 서로를 구분하고 예를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성경 로마서 13장에도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며...'라는 말씀을 통해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를 갖추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자신도 중고등학생시절을 돌아보면 장난치고 무례한 행동을 얼마나 잘 받아 줄 수 있는가를 친밀함의 표현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인정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며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선생님의 기대감을 끝으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코로나로 늦어진 오프라인 개학 덕분에 환일고 학생들을 5월에 처음 만났습니다. 경제동아리 학생들이었는데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경제 동아리 학생들에게 연간 활동계획서를 보여주며 연구 활동 위주로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는데 학생 중 한명이 "동아리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활동이니 만큼 학생참여와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 하더군요. 당연한 말임에도 평소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 적잖이 놀랐습니다. 입시라는 부담감에 묻혀서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겠죠. 첫 만남 때문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사회교사로서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열정에 부끄럽지 않게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절을 환일의 이름으로 함께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교생 실습을 마치며.....

대표 교생 정해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환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1학년 9반과 2학년 5반 학급담임 지도를 맡고,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 수업으로 함께 했던 교육실습생 정해성입니다. 저를 알고 제가 아는 친구부터, 오며 가며 마주쳤으나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한 친구들까지 많은 분이 계시지만, 오래전 바로 이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제게는 먼 후배가 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반갑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길지 않은 실습 기간을 지나 이제 좀 적응이 되나 싶은 시점에 이르자마자 이렇게 소감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 적잖이 당황스럽고, 여러분이 이 글을 확인하는 지금쯤이면 그 사이로 더 많은 시간이 채워져 많지 않던 기억들도 한층 흐릿해진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에 아쉬운 만큼이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못다 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하찮은 순간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학창 시절이 얼마나 특별하고 빛나는 순간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직은 학생이라는 걸모습 때문에 무엇도 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 각 사람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이 특별하고 고유한 누군가이며 동시에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무엇과 어디가 존재하고, 그러나 지금 당장에 처한 현실은 너무 다를지라도, 지금 선 자리에서 부단히 걸음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곳까지 다 다룰 길 또한 이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남에 의해 강제되는 역로가 아니라 스스로 걸음의 주인공이 되어 기꺼이 내딛는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음을 힘써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학생으로서 견뎌내야 하는 일상이 지겹고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외로울 때도 많겠지만, 여러분이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보이는 자리에서 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늘상 애쓰고 응원하는 많은 선생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함을 기억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크나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힘내시길, 그리고 부디 부끄럽지 않은 자기 자신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환일인으로서의 첫걸음

정보과 최우식 교사



안녕하세요. 환일고등학교에서 정보 교과를 맡게 된 최우식입니다. 환일고등학교는 SW 중점학교를 넘어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선두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환일고등학교의 구성원이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란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초연결시대로 들어서면서 정보 과학 기술은 어떤 시대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 교과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과입니다.

올해 환일고등학교에서는 정보, 프로그래밍 과목과 연합형 공동 교육과정 공유캠퍼스에서 자료구조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캠퍼스 수업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환일고등학교가 거점이 되어 인근 학교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기존의 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교과 선택의 기회는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진로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일고등학교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누구보다도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 분들과 선생님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진취적인 환일고등학교이지만 좋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는 비결은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활동 뿐만이 아닌 모든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오랜 전통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사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함께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설레기도, 걱정되기도 하지만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날 기념 감사편지

1학년 송민규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환일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1반 14번 송민규입니다. 많은 학우들을 대표하여 이사장님과 교장,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각 과목에서 헌신해주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비록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를 가진 못하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했을 때만큼의 효율과 저희의 인생에 꼭 필요한 많은 지식들을 주시기를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없었더라면 벌써 즐거운 수업시간에 선생님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예쁜 교정에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을 텐데, 학교에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온라인 상이 아닌 저희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환일고가 어느 과목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선생님들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인문 계열과 자연계열 뿐만 아니라 미술, 체육, 음악까지 다방면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저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곧 있으면 오프라인 개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자랑스러운 환일고등학교에서 최고의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을 할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쁩니다. 또한 오프라인 개학 후 진짜로 시작하게 될 2020학년도 새 학년, 새 학기가 너무나 흥분되고 기대될 따름입니다. 벌써부터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새로운 학년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저희 1학년들도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선배들보다 더 열심히 배우고, 모두에게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끌 소중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사장님, 교장, 교감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선생님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소감문

온라인 수업 소감문

3학년 방주현



코로나로 인해 전국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없게 되고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많은 장단점들을 느끼게 되었다.

먼저 장점으로는 주변 학생들의 방해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교실에서 친구들과 공부할 하게 되면 떠들거나 소음을 만들어 신경 쓰이게 만들어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된다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 집중하기 더 쉬워진다. 다음으로는 농친 부분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학교에서 수업하다보면 필기하다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업을 듣게 되면 농친 부분은 다시 돌려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없다. 평소에 학교에서 거리가 멀거나 막히는 거리를 지나야만 학교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 종종 원치 않게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면 집에서 하기 때문에 늦잠을 자지 않는 이상 지각을 하지 않게 된다.

단점으로는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교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집에서는 공부를 할 환경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 책상이 좁아 컴퓨터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할 수 없게 되고, 비록 혼자 듣지만 주변 집들이나 소음들로 인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해서 다른 친구들과 성적차이가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들로 인해 나중에 입시에 억울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온라인 강의를 틀어놓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수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선생님이 계시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지적해서 다시 집중하게 만들 수 있지만, 온라인 강의 경우에는 곁에 부모님이 항상 계시실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신을 봐 줄 사람이 없어, 강의를 틀어놓고 자거나, 게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것들에 괜히 신경이 쓰이게 되고 무언가를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집중 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르는 부분은 생길 경우에 질문을 잘 할 수 없게 된다. 학교에서는 수업 중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주변 친구들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은 교무실로 내려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 경우에는 실시간 Q&A라는 목록이 있음에도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모르는 부분이 있음에도 물어보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강의는 장점보다는 단점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실시한 것 같지만, 이번에 온라인 강의로 들은 내용들로 시험을 보게 된다면 지난해 고3 시험평균보다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독서캠프 소감문

2학년 안을



2020년 6월 18일 저녁 6시에 독보도서관에서 고1,2 20명 정도가 독서캠프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학생은 마스크를 쓰고 열 체크를 했고 자리도 지정된 좌석에 앉았다. 늘 그렇듯 시작은 교장 선생님의 간단한 말씀으로 시작했다. 그 후 7:30까지 자신이 준비해온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면서 밑줄 독서 기록장을 작성했는데 책의 전반적인 내용, 고른 이유, 인상 깊은 구절을 밑줄 치고 기록장에 옮겨 적는 것이다. 생소한 방법이었지만 책의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효과적인 글 읽기 방법인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음료수도 주시고 졸린 사람은 바람을 쐬 수 있어서 모든 학생이 큰 부담 없이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이라는 시집을 준비했는데 솔직히 간단하고 읽기 쉬워서 가져왔지만 시의 재미와 매력을 깨달았다. 7:30부터는 각자 쓴 밑줄 독서 기록장을 1분 이내로 발표했다. 내 생각 외로 모두가 진지하게 읽고 있음을 알았고 수준 또한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50 부터는 선장님의 형태인 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만드는 법을 영상을 통해 배웠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 면을 고서에 옮겨 적어보고 자신의 이름(도장)과 제목까지 새겨 자신만의 고서를 만들어봤다. 활동을 다 마치고 8:20부터 20분간 휴식시간이 있었다. 이때 약간의 답답했던 마음을 환기 시키고 선생님이 주신 김밥과 과자들로 허기진 배와 당을 보충했다. 그 후 8:40부터는 박지원의 '사기'라는 작품을 같이 읽고 작품설명을 영상을 통해 들었다. 각 학년 3명 정도 느낀 점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라 다들 쉽게 답변하진 못했지만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9시부터는 자신이 읽었던 책의 독후감이나 오늘 했던 활동에 대해서 소감문을 쓰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강압적이지 않고 자율적인 분위기가였고 또 그렇다고 참여를 안 하거나 노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진지하면서도 화목한 분위기가 편안하고 좋았다. 똑똑한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니 내 지적 수준도 올라가는 기분이었다. 선생님 두 분도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되게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고 끝까지 집중하고 수고해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6·25전쟁 70주년 소감문

1학년 임형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학교에서도 안보 특강을 하였는데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등교에 차질이 생겨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안보특강을 듣게 되었다. 약 50분 정도의 영상이었고 3년 동안 일어난 한국전쟁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전투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 중 전쟁 초기에 당시 평범한 학생이었던 분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시키기 위해 한 목숨 바쳐 싸우신 학도병 분들과 춘천 지역에서 남하하는 북한군을 상대로 군인과 민간인이 힘을 합쳐서 3일 동안이나 북한군의 발을 묶어 북한군의 주력부대를 괴멸시켰다는 내용에 큰 감명을 받고 감사함을 느꼈으며 이렇게 지켜낸 나라에서 열심히 할 일 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던 동기가 되었다. 근데 다만 한국전쟁이 역사적 사실이다 보니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일부 있다.

첫 번째는 우리 국군이 전쟁이 나기 전에 충분한 훈련과 신식무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전쟁 초반에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미군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 한국이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감시와 제한을 당한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세 번째는 미국이나 UN 가입국들이 동북아시아에 그 전부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한국전쟁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949년 전까지는 소련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도 있었으나 그 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당시 공산당의 모택동이 아닌 국민당의 장개석이 군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우세였는데 만약 당시 민주진영 국가들이 동북아시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한국과 중국을 통해 소련과 북한을 견제했으면 김일성도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고 소련의 스탈린도 전쟁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에게 슬프고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원망의 감정을 심어준 한국전쟁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켜야 하는데 평화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가지고 종전이 아닌 휴전이니 아직 우리나라가 전쟁국가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고 한국전쟁 참전용사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3학년 체육대회 소감문

3학년 윤호영



2020년 6월 19일, 환일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체육대회이자 3학년 6반에게는 1년 중 가장 많은 상을 받는 날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체육대회가 취소 될 것이라 믿었지만, 많은 아이들의 염원에 힘입어 걱정과 우려 속에서 체육대회는 진행되었다. 체육대회 당일, 하나님의 보살핌 덕분에 덤지도 않고 비까지 내려 체육대회를 하기에 한없이 좋은 날이었다.

6월 모의고사 다음날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져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걱정과는 달리 오늘 만큼은 걱정을 잊고 즐기고 싶은 얼굴들이어서 마음이 놓였다. 2학년 때는 이과반을 선택해서 학교생활을 했고, 3학년 진급 직전에 진로를 변경하여 체육 중점반으로 편성되었다. 체육대회는 무엇보다 체육 중점 학급으로 편성되어 치르는 첫 행사였기에 스스로 체육 대회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3학년이 되어 체중반에 새롭게 들어갔기에 학급에서는 새내기나 마찬가지로였고, 새내기처럼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체중반은 모든 종목에 우승하자는 마인드로 경기에 임했고, 담임 선생님께서 '경기에 지면 안된다'는 무언의 압박을 주셔서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 결과 농구, 800m계주, 100m, 승부차기, 축구 등 모든 종목 결승에 진출하였고 그중 4 종목의 우승을 차지하여 체중반이라는 이름에 알맞은 성적을 내었다. 아쉽게 농구는 2등을 차지했으나 처음 사격부가 참가하는 종목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격 대회가 미뤄진 사격부 학생까지 참가해서 조금 더 색다른 체육대회였다고 말할 수 있고, 특히 나에게도 더욱 의미 있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체육 중점반으로 결정된 후 선택과목을 바꾸면서 생기는 학업에 대한 혼란스러움, 체중반 친구들과 사격부 친구들과 적응할 시간이 적었던 나에게도 2020년 3학년 체육대회란 같이 협동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쉬워 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날만큼은 아무런 걱정, 힘든 줄도 모르고 어떤 행사라도 최선을 임했던 것 같다.



교외수상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상



3학년 양원석 3학년 조재원 3학년 함시온

서울사립인문고등학교장회회장상



3학년 박은성 3학년 연경욱 3학년 지영환 3학년 박지우

한국기독교학교 연합회상



3학년 함시온 3학년 김희상 3학년 이찬행 3학년 조중현

한국기독교학교 연맹상



3학년 최 건 3학년 박재민 3학년 박영우

용산구청장상



3학년 신동현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상



3학년 박예찬



3학년 김준영

서울시지방경찰청장상



3학년 송 건



단체상



농구 우승 3학년 1반



승부차기, 족구 우승 3학년 6반



자유투 우승 3학년 8반



교내수상

100M 달리기 1위



3학년 김현수

800M 달리기 1위



3학년 김현수



3학년 박재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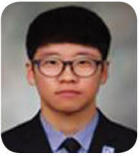
3학년 안인호



3학년 윤호영



3학년 김윤호



3학년 박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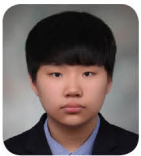
영어듣기대회 금상

동아시아사 문화유적 탐방설계대회 금상



3학년 박영우

사회문화현상 탐구대회 금상



3학년 김영민

독서캠프 창작왕대회 금상



2학년 안 울

중국 민속놀이 경연대회 금상



3학년 이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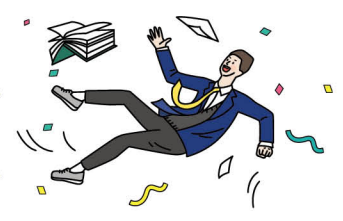
중국 상식 퀴즈대회 금상



3학년 송인영



수상을 축하합니다!



주요 행사일정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6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대수능시험모의평가 9/23 학교운영위원회 9/24 개교기념예배 9/24 가을밤열린음악회 9/26 개교기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2~10/16 중간고사 10/20 대학탐방 중3학부모설명회 10/22 학교운영위원회 10/23 고2 체육대회 10/27고3전국연합학력평가 10/30 봉학마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3 수업공개 및 학교방문의 날 11/4 명사특강 11/6 고1 체육대회 11/16 추수감사예배 11/18 고1,2 학력평가 11/23 추모예배 11/27 학교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3 대학수학능력시험 12/7~12/11 고3 기말고사 12/14~12/18 고1,2 기말고사 12/18 학교운영위원회 12/21~12/22 고3 스키캠프 12/23 수능성적발표 12/24 성탄절예배 12/28 성가경연대회 12/29 방학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신년예배 및 하례식 1/5~1/20 방과후학교 1/26 개학식 1/27~29 고1 스키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졸업식 2/8 종업식 2/9~2/24 방과후학교 2/16 1차 신입생O.T 2/17~19 2차 신입생O.T 2/22~2/26 신입생 학부모상담